

[(가)의 1문단]

①정립-반정립-종합.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로는 단연 헤겔이 거명된다.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 정립-반정립-종합

- 대립적 두 범주: 정립-반정립
- 통일, 상향하여 수렴되는 결과: 종합

헤겔: 변증법에 따라서 철학적 논증을 수행함

헤겔에게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즉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이기에,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이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녀야 한다.

1문단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부터는 분리해서 읽어야 한다. 왜냐하면 단순 '변증법'이 아니라 '헤겔의 변증법'이기 때문이다.

헤겔의 변증법 활용 방법

- 논증의 방식
- 논증 대상의 존재 방식

이념은 세계의 근원적 질서다.

- '이념' 자체가 가지는 내적 구조
: 논증 대상의 존재 방식
-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
: 논증의 방식

-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룬다.

- : 논증 대상들의 존재 방식
- 이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녀야 한다.
: 논증의 방식

기존의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이지만

헤겔은 한 단계 더 나아가, 대상이 존재하는 방식을 변증법이라 생각한 것이다.

[(가)의 2문단]

헤겔은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한다. 그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다. 절대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⑥가리킨다.

미학의 대상: 예술

목표: 이념을 인식하는 것

수단: 절대정신(인간의 정신 영역)

절대정신의 종류: 예술, 종교 철학

예술·종교·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절대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표상·사유이다.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며,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다.

절대정신: 인간 정신의 영역이며, 기능은 세계의 근원적 질서를 인식하는 것이다.

절대정신의 내용: 절대적 진리, 다시 말해서 이념

인식의 형식

절대정신의 형식(내적 구조): 지성

절대정신은 인간의 정신 영역이며, 기능은 세계의 근원적 질서를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정신 영역이 달라지면 인식의 형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성의 종류: 직관, 표상, 사유

- 직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
- 표상: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
- 사유: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

CHECK 1 내용과 형식의 구분

해당 구조는 논리학에서는 외연과 내포라 한다.
좋은 신문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첨부했다.

신문으로 배우는 논리학 개념 ② 외연과 내포

'우리 머리에 떠오르는 대상에 대한 생각'이 개념이라는 사실, 잊지 않았지요?

이번 회엔 개념의 '겉모습과 속모습'에 대해 공부해 볼까요. 물건만 겉과 속이 있는 줄 알았는데 생각에도 겉과 속이 있다니 신기하죠?

개념의 겉모습을 논리학에서는 외연(外延·겉으로 보여지는 범위)이라 부르고, 속모습은 내포(內包·안에 품고 있는 성질)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외연은 '범위', 내포는 '특징'이지요.

사진(본지 3월 7일자 12면)은 미국 바비 인형(파란 눈과 금발)의 인기에 맞불을 놓기 위해 이란 정부가 지난 5일 선보인 '사라 인형'입니다. 여덟 살짜리 여자 어린이의 몸매에 갈색 머리와 갈색 눈을 가졌다는군요.

여러분은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등 기념일에 예쁜 인형 선물을 받은 적이 있나요? 참! 지난 밸런타인 데이에 초콜릿과 함께 선물을 받은 친구들도 있겠군요.

인형이란 '형질·플라스틱 등으로 사람이나 동물의 모습을 본떠 만든 장난감'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는데, 이는 인형의 내포(특징)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럼 인형의 외연은 무엇일까요? 곰인형, 마시마로인형, 향기 나는 인형, 말 하는 인형 등 인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범위 전체를 가리키죠.

"선생님, 그냥 생각만 하면 되지 생각의 겉모습(외연)이랑 속모습(내포)을 꼭 알아야 하나요?" 라고 묻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물의 이치를 제대로 헤아리려면 개념(생각)을 바로 알아야 하고,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선 내포와 외연을 뚜렷이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박미영<본지 NIE 연구위원>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4240776>

이에 세 형태는 각각 '직관하는 절대정신', '표상하는 절대정신', '사유하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된다. 헤겔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되고, 이에 맞춰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서 종합된다.

CHECK 2 ~하는 A

'~하는 A'는 'A는 ~하고 있다'로 치환가능하다.

예를 들어보자.

'춤추는 강아지'는 '강아지가 춤을 춘다'로 치환가능하다.

그렇다면 '직관하는 절대정신', '표상하는 절대정신', '사유하는 절대정신'은 '절대정신이 직관한다' '절대정신이 표상한다' '절대정신이 사유한다'로 해석할 수 있으며,

직관, 표상, 사유라는 기능에 따라 인간의 정신 영역이 구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증법 논리를 사용하면,

절대정신의 내적 구조에서 정리되는 내용은

: 직관-표상-사유이며, 대립적 관계 '직관-표상'에서 직관은 '외면성', 표상은 '내면성'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이는 또 다른 대립 논리쌍인 '외면-내면'으로 연결된다.

절대정신, 즉 인간 정신의 영역으로 정리되는 내용은

: 예술-종교-철학이며, 대립적 관계 '예술-종교'에서 예술은 '객관성', 종교는 '주관성'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이는 또다른 대립 논리쌍인 '객관-주관'으로 연결된다.

그럼 2문단에서 정리된 내용은 무엇인가?

헤겔의 관점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를 잊지 않아야, 2문단에서 논증 방식으로서의 '변증법'을 통해 정리된 것이 '절대정신의 존재 방식'과 '지성의 존재 방식'이 정리된 것임을 납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의 3문단]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내용의 인식 수준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다. 헤겔에게서 절대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는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예술은 직관하고 종교는 표상하며 철학은 사유하기에, 이 세 형태 간에는 단계적 등급이 매겨진다. 즉 예술은 초보 단계의, 종교는 성장 단계의, 철학은 완숙 단계의 절대정신이다. 이에 따라 ㉠예술-종교-철학 순의 진행에서 명실상부한 절대정신은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것, 즉 철학뿐이며,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된 머나먼 과거로 한정된다.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 정립-반정립-종합

- 대립적 두 범주: 정립-반정립
- 통일, 상향하여 수렴되는 결과: 종합

라는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로 파악한다면,

상향하여 수렴되는 결과로서,

- 절대정신에서의 종합: 철학
- 지성에서의 종합: 사유

로 정리되며,

가장 우선시되는 정신영역은 철학이며, 가장 우선시되는 지성이 사유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대립적 관계에서 어느 것이 더 상향되어 있는지는 2문단까지의 논리로 알 수가 없다.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내용의 인식 수준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단순 변증법이나 헤겔의 변증법을 통해 증명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변증법에서 벗어나 헤겔의 관점에서 단계적 등급을 매기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수도 있으며, 헤겔의 변증법을 심화하여 논증 대상의 존재 방식을 더욱 세부적으로 기술한 것일 수도 있다.

지성에도 수준이 있으며, 이는 인류의 보편적 지성과 연관이 있다.

가장 낮은 수준의 지성은 '직관'이며 이에 대응하는 절대정신은 예술이었다.

지성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지성은 표상을 거쳐 사유로 나아갔으며, 절대정신은 종교를 거쳐 철학에 이르렀다.

따라서 최고의 지성인 '사유'를 인식하고, '사유' 자체를 내용인 '철학'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한다.

CHECK 3 철학 및 미학

혹은 어려운 지문 읽는 법

다시 말해서, 인간의 뇌는 정보 정보 덩어리를 최대한 적은 정보 묶음으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학문적 방법은 많은 내용을 함축하는 어려운 단어를 정보 묶음 덩어리의 핵으로 사용합니다만... 역설적이게도 뇌는 어려운 정보를 사람은 잘 받아들이지 못하며, 해석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기 어려운 정보와 마주쳤을 때, 사람은 그 정보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이 현상은 수능장에서 글을 읽을 때도 발생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단어를 접하게 되면, 수험생 분들은 순간 착각을 경험하게 되고, 글 자체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이 착각이 더 심하게 오면, 흔히들 말하는 뇌 정지를 겪게 됩니다.

뇌 정지를 겪더라도 수험생 분들은 보통 다시 글을 읽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뇌는 그 어려운 정보에 같은 방식으로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어려운 단어를 피하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쉬운 것에 집중하자.

금연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봅시다. 습관적으로 담배를 물고 있었기 때문에, 막상 담배를 안 피면 입이 허전합니다. 그 허전함을 대신하게 위해, 금연하시는 분들은 사탕을 입에 물곤 합니다. 이 방법은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조건형성]

다르게 말해보죠. 글을 읽다가 수험생 분들은 어려운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집중하는 것에서 멀어지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대신 집중할 것이 필요합니다.

이 때 쉬운 단어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정신의 종류	내용
예술	- 초보 단계 -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된 머나먼 과거에서만, 절대정신으로 기능함
종교	- 성장 단계
철학	- 철학은 완숙 단계의 절대정신 -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것

[(나)의 1문단]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에 있다. 종합의 범주는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도 안 되고,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로 나타나도 안 된다.

변증법에 있어 중요한 점: 종합

그래서 종합이란?

-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도 안 됨
-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면 안 됨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 유기적 조화의 결과: 최상의 범주

[(나)의 2문단]

헤겔이 강조한 변증법의 탁월성도 바로 이것이다. 그러기에 변증법의 원칙에 최적화된 엄밀하고도 정합적인 학문 체계를 조탁하는 것이 바로 그의 철학적 기획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그가 내놓은 성과물들은 과연 그 기획을 어떤 흠결도 없이 완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 미학에 관한 한 '그렇다'는 답변은 쉽지 않을 것이다.

변증법의 탁월성: 종합

(나)의 글쓴이는 헤겔이 변증법을 중요시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 하지만 (나)의 글쓴이는 헤겔이 미학에 대한 결과물이 변증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러면 (나)의 글쓴이는 어쩌서 헤겔의 미학이 변증법을 완벽하게 지키지는 않았다고 말하는 것인가?

지성의 형식을 직관-표상-사유 순으로 구성하고 이에 맞춰 절대정신을 예술-종교-철학 순으로 편성한 전략은 외관상으로는 변증법 모델에 따른 전형적 구성으로 보인다.

'A는 외관상으로는 B(으)로 보인다.'

- 치환 전략을 통해 긴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가 B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A는 B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형식을 '직관-표상-사유'으로 구성하고, 절대정신을 '예술-종교-철학'으로 구성한 전략은 변증법적 구성으로 보이지만, 실제 변증법적인 구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 왜 변증법적인 구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일까?

그러나 실질적 내용을 ④보면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외면성이 점차 지워지고 내면성이 점증적으로 강화·완성되고 있음이,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객관성이 점차 지워지고 주관성이 점증적으로 강화·완성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날 뿐,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은 ④이루어지지 않는다.

형식 측면에서 사유로 향할수록 외면성이 지워지고 내면성만이 일방적으로 남게 되며, 절대정신 측면에서 철학으로 향할수록 객관성이 지워지고 주관성만이 일방적으로 남게 된다.

다시 말해,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게 되는 것이며, 이는 종합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직관의 외면성 및 예술의 객관성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감각적 지각성인데, 이러한 핵심 요소가 그가 말하는 종합의 단계에서는 완전히 소거되고 만다.

철학 단계, 다시 말해 종합단계에서 완전히 소거되는 것들 : 직관의 외면성, 예술의 객관성, 감각적 지각성

[(나)의 3문단]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헤겔은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정신을 추가했어야 할 것이다.

진정한 종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철학으로 진행되며 소거된 것들이 다시 부활할 필요가 있다.

: 직관의 외면성, 예술의 객관성, 감각적 지각성

따라서 철학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객관화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그럼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가?

예술은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이다. 실제로 많은 예술 작품은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되지 않는가.

바로 예술이다.

실제로 예술작품은 '사유'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오감, 다시 말해 우선적으로 감각적 인식이 있어야 한다.

즉, 예술을 철학 이후의 자리에 위치시켜서, 직관의 외면성, 예술의 객관성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설정한다는 것이다.

순환구조를 만들어서, 종합을 이루자는 것이다.

게다가 이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예술적 체험을 한 헤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헤겔은 변증법 역시 잘 알고 있다.

헤겔은 예술의 특징 역시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미학에 대해 이런 방식으로 정리한 건 실망스러운 결말이다, 라고 (나)의 글쓴이는 생각한다.

이 때문에 방법과 철학 체계 간의 이러한 불일치는 더욱 아쉬움을 준다.
